**2018 국제학부 동계 일본 단기 인턴십(OJT) 에세이**

* 전체 일정: 2019.01.20~2019.01.25 (5박 6일)
* 연수 기간: 2019.01.21~2019.01.24 (3박 4일)

경제학과 201421782 김헌태

목차

1. 들어가며3
   1. 국제학부 일본 단기 OJT 프로그램이란3
   2. 선발 및 준비과정3
2. 연수 과정4
   1. 1일차 – 출국일 4
   2. 2일차 – 연수 첫째 날5
   3. 3일차 – 연수 둘째 날6
   4. 4일차 – 연수 셋째 날7
   5. 5일차 – 연수 넷째 날8
   6. 6일차 – 귀국일 9
3. 느낀 점9
4. 들어가며
   1. 국제학부 일본 단기 OJT 프로그램이란

OJT란 ‘On the Job Training’의 약어로, ‘직장 내 훈련’, ‘현장 연수’ 등으로도 번역된다. 일본에서 OJT는 일상의 실무를 시키면서 종업원을 교육시키는 방법을 의미하고 있다. OJT는 강의나 세미나 이외의 종업원 교육 훈련의 일부이면서, 선배 사원이 신입 사원을 훈련시킨다는 도제식 교육의 일종이다.

국제학부가 운영하는 일본 단기 OJT 프로그램은 일본에서 신입사원이 입사한 직후 받는 OJT의 일부분을 체험하면서, 일본의 사내 문화와 현장 훈련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회사는 일본의 중견기업 ‘다이코 그룹’ 산하 ‘다이코 IWS’이며, 일본 도쿄도 치요다구에 소재한 도쿄본부에서 우리의 연수가 진행되었다. 총 일정은 5박 6일, 연수 기간은 3박 4일이다.

‘다이코 IWS’는 ICT 인프라, 시스템 개발, 세큐리티 대책, 교육 컨설팅, 비즈니스 인텔리전트 등 기업 간 거래를 통해 기업 경영에 대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들 업무는 곧 IT기술과 직결되는데, 때문에 기존 연수에서는 파이썬 코딩 등의 실습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에 참가한 학생들은 모두 문과에 IT지식이 전무하여, 코딩 교육은 제외되었다.

* 1. 선발 및 준비과정

선발은 서류와 면접이었다. 신청서와 기타 서류들을 제출한 뒤, 교수님과 면접을 거쳤다. 면접에서는 지원동기, 부족한 일본어를 어떻게 보완할지 등에 대해 일본어로 간략히 말해보는 시간도 있었다. 그 뒤 교수님은 일본어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라고 말씀하셨다. 상대 기업이 최종 선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JLPT N2를 갖고 있었지만, 일본어 작문은 일본어 강의 시간에 간단한 문장을 만들어보는 정도에 그쳤다. ‘글’이라고 부를 만한 일본어를 써본 적은 없었다. 중간고사 기간이었지만 일본어 강의를 들었던 교수님의 첨삭을 거쳐, 처음으로 일본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완성할 수 있었다. 나는 처음부터 경제 여건이 회복되고 있고, 경력을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일본 취업을 염두에 두고 이 프로그램에 임하고 있었다. 만약 일본 기업에 지원하게 된다면 이번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최종 합격통보를 받게 되었는데, 총 인원은 2명이었다. 다른 합격자는 나와 함께 국제학부 소속 소학회인 일본연구회에서 같이 활동하던 친구였다. 항공편을 국제학부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숙소만 해결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이미 알고 지내던 친구였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은 없었다. 우리는 회사에서 가까운 비즈니스 호텔을 예약한 뒤, 결제는 연말로 미뤄두었다.

하지만 연말부터 엔화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아마 미중 무역마찰로 야기된 불확실성과 연말연시 관광수요가 겹쳤던 것 같다. 우리는 저렴하게 큰 호텔을 예약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제일이 다가오니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였다. 더 이상 미뤄도 다른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더 저렴한 호텔을 찾아 바로 결제를 진행하였다. 그래도 회사와의 거리는 가까웠다. 근처에 사무실이 많은 곳이어서 금세 예산에 맞는 호텔을 찾을 수 있었다.

2학기가 종강한 뒤, 교수님과 사전 미팅을 했다. 교수님의 연구실에 모여서, 공항 집결 시간과 출퇴근 시 보고체계, 그리고 통금시간 등 세부일정을 정했다. 그리고 교수님은 배우러 가는 입장이니 선물을 하나 준비해 가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조언해 주셨다. 우리는 율무차 선물세트를 준비해 가게 되었다. 회사에서 교육받을 때 복장은 정장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처음으로 정장을 맞추게 되었다. 일본에서 면접을 보게 될 것을 생각하여 일본에서 면접용 ‘리쿠르트 슈트’로 여겨지는 검은 정장으로 구매했다. 다시 이 색상의 정장을 일본에서 입게 될 일이 있기를 바라고 있다.

면접에서 교수님께 부족한 일본어를 보완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막상 기간이 가까워지니 여건이 마땅치 않았다. 종강을 한 직후부터 국제학부에서 진행하는 또 다른 프로그램, 오키나와 현지조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느라 따로 일본어를 공부할 시간이 나지 않았다. 그래도 오키나와에서 현지인들과 부딪히며 일본어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녹취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본어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오키나와에서 귀국한 뒤 보고서를 제출하고, 짐을 다시 꾸리니 바로 출국일을 맞이했다.

1. 연수 과정
   1. 1일차 – 출국일

출국 시간이 오전 9시 정각 항공편이어서, 공항 집결 시간은 6시 반이었다. 나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공항버스 첫차를 타고, 5시 반부터 공항에서 대기하였다. 동행하게 된 예지 학생과 먼저 만나 체크인을 진행하고, 탑승수속을 마친 뒤 탑승구에서 교수님과 만났다. 이내 비행기는 이륙했고, 나는 한달에 두 번 일본으로 출국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교수님과 우리는 숙소가 달랐다. 나리타 공항 수화물 수령구역에서 교수님과 만난 뒤, 각자의 숙소로 이동했다. 도쿄는 처음이어서 서울보다 복잡한 전철 노선도에 놀랐으나, 금세 적응할 수 있었다. 우리는 공항에서 도쿄 시내 노선으로 직행하는 게이세이 스카이 엑세스 선을 타고, 환승한 뒤 숙소에 도착했다. 호텔 체크인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서, 짐을 프런트에 맡긴 뒤 근처에서 점심을 해결하기로 했다. 우리는 체크인을 한 뒤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휴식시간을 가진 뒤 긴자역으로 향했다.

교수님의 숙소는 긴자역 인근이었다. 사전에 일정을 조율할 때 교수님께서 1일차 저녁을 사주시기로 했었다. 우리의 선배님이 되는 분과 함께 만나, 긴자역 주변의 가게로 들어갔다. 4명이서 일본에서의 생활, 취직, 진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우리는 숙소로 돌아왔다.

* 1. 2일차 – 연수 첫째 날

아침은 호텔 주변에 있는 편의점에서 해결했다. 준비를 마치고, 우리는 다이코 도쿄본부로 향했다. 도보로 10분 거리였다. 교수님과 건물 1층의 카페에서 만나, 간단히 이야기를 나눈 뒤 건물을 올라갔다. 4일 간 우리를 교육해 주실 와타나베 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인사를 나눈 뒤 간단한 선물을 전달했다. 교수님과 현지에서 만나는 일정은 이것이 마지막이었다. 연수가 시작되자, 교수님은 다음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이동하셨다.

출입증을 받은 뒤, 제일 먼저 사원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IT업체이기에, 사무실은 각자의 업무에 집중하는 분위기였으나, 와타나베 씨가 잠시 주목해달라는 말씀을 하자 모두가 일어나 우리를 바라보았다. 이전에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을 때에도 비슷한 기회가 있었는데, 직원들이 굳이 일어나서 인사를 받지는 않았다. 인사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모두가 움직일 때에는 다 함께 행동하는 것이 일본의 사회 분위기라고 처음 느꼈다. 인사가 끝나자 직원들은 다시 각자의 업무로 돌아갔다.

우리는 사무실 한 편에 각자의 자리와 노트북을 할당 받았다. 와타나베 씨의 안내에 따라 노트북을 세팅하고, 첫 연수 스케줄을 이어갔다. 회의실에 모여, 다이코 그룹에 대한 소개를 받게 되었다. 다이코는 설계회사로 시작하여, 고객이 되는 상대 회사의 수요에 맞추어 사업분야를 확장하면서 성장한 그룹이었다. 연수 내용 중에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고객 서비스 등을 강조한 것은 그러한 성장배경과도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이코의 한국인 기술인재 육성 프로그램 등에 대해 들어볼 수 있어서, 한국에 돌아가면 여러 경로로 비슷한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한국은 IT직종에 이공계 학생만 채용하는 성향이 강한 반면에, 일본은 문과 계열 학생이라도 일본어가 유창하고 K-move 등 IT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다면 채용하려는 성향이 두드러졌다. 회사에서 만나게 된 6개월차 한국인 직원도 문과 계열이지만, 그와 같은 경로로 입사하게 되었다고 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뒤, 연수를 이어 나갔다. 우리는 회의실에 모여 언어기술 게임을 시작했다. 둘 중 어느 한쪽이 그림을 보고, 상대방에게 말로 그것을 설명하면, 상대방이 그리는 형식이었다. 언어에 제한을 두지 않아서 최대한 일본어로 설명하고, 잘 모르는 단어만 한국어를 섞어 사용했다. 어려운 일이었고, 결과물도 실제 그림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이를 통해 무엇인가를 보고 이해하는 것, 정확한 말로 표현하는 것, 그리고 표현하여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것 모두가 중요하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다. 와타나베 씨는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 읽고 쓰기도 중요하지만 듣고 말하는 능력도 균형 있게 갖추어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다.

다음 게임은 사막에서 조난당한 상황을 상정하여, 살아남기 위해 남은 물품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임을 진행했다. 이 활동을 통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을 배울 수 있었다. 조난 지점에서 이동할지, 머무를지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을 정한 뒤, 결정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가장 처음 할 일이었다. 그 뒤 대전제부터 상세 내용까지 좁혀 나가며 의논하고, 모두가 동의하는 ‘콘센서스’를 형성해야 했다. 콘센서스는 많은 사람의 의견이 반영될수록, 모범답안과의 오차를 줄일 수 있었다. 콘센서스가 한 번 형성되면 그에 따라야 일을 진행할 수 있으며, 틀린 부분이 있다면 다시 모두와 논의하며 새로운 결정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매일 연수가 끝나면, 회사에 제출할 연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어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이어서 보고서까지 처음 작성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와타나베 씨의 지도에 따라, 개조식으로 보고서를 쓰는 방법과 일본어의 구독점에 대해서 교육받을 수 있었다. 퇴근 시간은 6시였다. 회사에서 아키하바라 일대가 가까웠기에, 한번 둘러보고 숙소로 돌아왔다.

* 1. 3일차 – 연수 둘째 날

출근한 뒤, 와타나베 씨와 셋이서 짧은 미팅을 가졌다. 전날 저녁 식사와 몸 상태, 그날 할 일까지 브리핑을 하게 되었다. 회사의 출입증을 걸고 있는 동안에는 같은 조직의 사람으로서 챙겨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식의 미팅은 연수가 끝나는 날까지 매일 진행되고 있었다.

연수 둘째 날은 일본의 고객 서비스와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배웠다. 고객 서비스는 기업이 제공하는 측면보다도 고객이 느끼는 측면에 의해 완성되며, 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관성과 함께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들었다. 이에 대해서 듣고 있을 때 스타벅스와 같은 국제적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었다. 한국에서 스타벅스는 자신의 노트북이나 책을 갖고 들어와서 자신의 일이나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소라는 이미지가 있다. 일본에서도 호텔 주변에 스타벅스가 있었는데, 한국과 비슷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를 보고 어디에서나 같은 브랜드는 같은 목적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느꼈는데, 연수를 통해 이 것 또한 고객 서비스의 일환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연수에서는 비슷한 예시들이 제시되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JR과 같은 철도 회사들이 운행이 지연되면 지연증명서를 발행하고, 이는 회사나 학교에 지각 시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고객에게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배울 수 있었다.

컴플라이언스는 회사에 대해서 법령을 준수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었다. 하지만 90년대 일본 기업에서 도덕적인 스캔들이 터져 나오면서, 컴플라이언스는 취업규칙이나 사내규정, 나아가 사회의 윤리와 상식을 준수하는 의미로 확장되어, 일본의 신입사원들에게 교육되고 있었다. 일례로 대한항공 회항 사건 등 한국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건들도 언급되었다. 컴플라이언스를 위반하면 고객이 가진 기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이는 기업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이었다. 한국에서도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최근 기업에서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지만, 일본에서는 이를 ‘컴플라이언스 준수’라는 별도의 개념으로 교육시키고 있다는 점이 인상깊었다.

일본은 고객 서비스에 대해서도 의사결정 구조를 채택하고 있었다. 한 번 매뉴얼이 완성되면 그에 따르고,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상부에 보고하고 의논하여 새로운 매뉴얼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의 것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전날의 연수와 이어져 있었기에, 일본 사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일본어로 연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에도 익숙해져, 와타나베 씨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었다.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던 것이었다. 인턴십이라고 말하기에는 짧은 프로그램이지만,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 날은 프레젠테이션 과제가 주어졌다. 발표일은 연수 마지막 날인 2일 뒤, 형식은 일본어로 15분간 PPT였다. 주제는 이번 OJT에서 배운 점들, 사회인이 되기 위한 준비, 그리고 10년 뒤의 자신을 상상해보는 것이었다. 연수 내용을 복습하고, 퇴근을 맞이했다.

* 1. 4일차 – 연수 셋째 날

이 날은 다음날로 예정된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전념하는 것이 연수 일정이었다. 먼저 수첩에 정리해둔 내용에 따라, 일본어로 대본을 작성했다. 와타나베 씨에게 대본에 쓰인 일본어 문법 등에 대해서 첨삭을 받은 뒤, PPT를 만들어 나갔다. 정장을 입고 사무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 자신의 업무를 가지고 일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새로운 기분이었다. 일본어로 발표를 진행하는 것 또한 이번이 처음이어서, 긴장감도 있었다.

그 와중에 우리가 준비해 간 선물이 공개되었다. 직원들은 교수님이 준비하신 다과와 우리가 준비한 율무차로 작은 티타임을 가졌는데, 그로 인해 조용하던 사무실 분위기가 풀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지나가면서 마주치는 직원들이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었다. 작은 성의가 가져온 변화가 어떤 것인지 체감할 수 있었다. 율무차는 모두 한글로 적혀 있어, 우리가 마시는 방법을 일본어로 번역해 사무실에 붙여 두기도 했다.

이 날은 PPT자료를 만들면서 대본을 계속 읽어보다가 퇴근을 맞이했다. 나는 일행과 떨어져, 치바 현에 살면서 도쿄에서 일하는 친척을 만나게 되었다. 도쿄에서 처음으로 혼자 전철을 타게 되었는데, 서울 지하철과의 차이점들을 관찰하면서 이동하게 되어 특별한 경험이었다. 시나가와 역에서 친척들과 만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일본 취업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시작으로 여러 이야기가 오갔다. 사촌누나는 그렇다면 이번 학기부터 슬슬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조언을 해주었다. 여러모로 진로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먼저 귀국하신 교수님께 카톡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숙소로 돌아왔다. 숙소에 돌아와서도 프레젠테이션 대본을 계속하여 읽어보았다.

* 1. 5일차 – 연수 넷째 날

OJT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긴장감에 사로잡혀서, 아침 식사도 간단한 유제품으로 해결했다. 출근한 뒤에는 계속하여 대본과 PPT자료를 점검했다. 와타나베 씨와 점심식사를 같이 하기도 했다. 회사에서 회식으로 자주 가는, 근처 정식집에서 회 정식을 먹게 되었다. PPT자료가 완성되자, 와타나베 씨가 다시 일본어를 확인해 주셨다.

발표는 회장님과 사장님이 참관하셨다. 예지 학생의 발표가 먼저였다. 나는 대본을 읽으면서 발표를 진행했는데, 예지 학생은 대본 없이 자신의 생각을 바로 말하는 것을 보고 일본어 공부가 많이 부족하다고 실감했다. 발표가 끝난 뒤에는 발표 내용과 일본 취업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회장님은 사회인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책임을 갖고 사회에 공헌하면서 안심과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사회의 안전이 있어서 자신의 성장도 있었다는 점을 기억하며, 인연을 소중히 여기라는 조언을 해 주셨다. 나는 아직 지원할 직무를 정하지 못해서, 어떤 것이 자신에게 맞는 직무일지 질문했다. 그러자 두 분은 ‘자신에게 맞는 직무’란 사회인에게도 영원한 고민이라며, 자신의 발자취에 답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셨다. 사장님은 내가 제출한 이력서를 보면서, 문서 작성이나 정보 관리와 같은 업무가 익숙할 것 같다고 의견을 내주셨다. 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지만, 임원급의 시각으로 바라본 나의 경력이 어떤지 알게 되어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또한 사장님은 자사의 경우 매뉴얼을 만드는 업무가 이에 해당한다고 은근히 홍보를 하셨다. 그러면서 다이코 뿐만 아니라 일본 취업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를 받아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새로운 인연을 하나 만들고 가게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발표가 끝난 뒤, 연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모든 OJT 일정을 마무리했다. 우리는 출입증을 반납하고, 처음과 같이 모든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다이코 IWS 도쿄본부가 있는 건물을 빠져나왔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직원들과 더 많이 이야기하지 못한 것이 내심 아쉬웠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우리는 건물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도쿄에서 활동하는 마지막 날이기에, 우리는 아사쿠사역 인근으로 향해 거리를 둘러보며 기념품을 샀다. 하지만 관광지여서 그런지 이미 퇴근 시간에는 상당수의 가게들이 문을 닫은 상태였다. 가까운 회전초밥 가게에서 저녁 식사를 해결하고, 숙소로 돌아왔다.



그림 1 다이코 도쿄본부가 소재한 건물 1층에서.

* 1. 6일차 – 귀국일

도쿄에서의 마지막 날을 아침 일찍 맞이했다. 나는 잠을 설친 탓에 새벽 4시부터 호텔 TV로 아침뉴스를 보고 있었다. 일본어로 된 방송을 자막 없이 볼 수 있어서 신기했다. 항공편은 오후 1시 20분이었지만, 이동 시간만 1시간 반 소요된다. 우리는 아침 일찍 호텔 체크아웃을 마치고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 갔다. 한국에서 기다리는 지인들을 위해, 나리타 공항 면세점에서 기념품을 사 들고 비행기에 탑승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어서오세요 한국입니다’ 문구를 보면서, 출발할 때 가졌던 고조감이 빠르게 식어갔다. 교수님께 귀국 소식을 보고하고, 귀가하면서 지금까지 한 일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며 국제학부 일본 단기 OJT 프로그램을 마치게 되었다.

1. 느낀 점

이번 학기에 국제학부에서 운영하는 모든 일본 파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저 관광이나 교류회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얻어갈 수 없는 소중한 경험들을 얻어갈 수 있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의 경우 일본 도쿄에서, 정장을 입고 출퇴근하며 교육받는 경험은 특별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배우고 고민하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 이렇게 현지에서 부딪히며 경험해 보는 기회가 학부생에게 주어진다는 점에서 학교에 감사했다. 이번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의 진로를 고민하면서 배운 점들을 되살리고 싶다고 생각했다.

또한 이번 달 국제학부 프로그램으로 일본에 두 번 와 있는 동안에, 일본어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을 되돌아보며 그 동안의 일본어 공부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느끼게 되었다. 반면에 내가 가진 일본어 실력으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실감하여, 앞으로의 공부에 강한 동기부여가 되었다.

처음 이 프로그램에 지원했을 때, 일본 취업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했다. 다이코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 우리의 담당자인 와타나베 씨, 다이코의 회장님과 사장님 등과 이야기 하면서 구체적으로 일본에서 취업한다는 것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었다. 일본은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불황 회복 등의 요인들이 맞물려서, 일자리는 많은 상황이다. 다이코 임원들은 그래서 그와 다른 취업난에 놓여있는 한국의 청년층은, 일본의 청년층과 다른 절박함이 엿보여서 선호한다고 입을 모았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본의 기업들은 출근수당, 주택수당 등으로 정기권과 주거 비용을 지원해 타지 생활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었다. 생활물가는 한국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이러한 점들을 현지에서 확인했으니, 남은 것은 나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업종과 기업, 자신에 대한 분석을 거듭하여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에 큰 동기를 얻게 되었다.